

전주 특례시 지정, 정부에 요청

김승수 시장-전북 4대 중단 대표-지역 정치권

진영 행안부 장관과 면담... 지역 현안 건의

전주시와 전북지역 4대 중단, 지역 정치권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북 현안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 진영 장관에게 그간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박성일 안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수, 임상규 전북도 기획관리

실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안호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김관우 전북대학교 부총장, 박성팔 전주교구 총대리신부, 성우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총장, 한은숙 원불교 전북교구장 등 전북지역 4대 중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 시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특례시와 관련해 전주 특례시 지정이 특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역

설했다. 실제 현재 정부안인 인구 100만 이상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그간 지속돼온 정부의 불균형 정책으로 특혜를 받은 수도권 등 경쟁력이 높은 지역만 더욱 유리해져서 또 하나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그간 이어져온 정부의 불균형 정책으로 인해 낙후된 전북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라도 거점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지방행정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날 함께 참석한 지역 정치권과 4대 중단 대표들도 전북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열쇠가 될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플루

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회의 능동적인 역량강화 교육연수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안전부 관련 전북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의 4대 중단 대표와 교육계, 정치권 등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 튼튼한 집을 짓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전주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와 전북지역 4대 중단, 지역 정치권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북 현안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뇌물 수수·도피 혐의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돼 8년간 도피행각을 벌였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3억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 교육계 수정인 피

고인은 누구보다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확대돼 이를 회피하고 도주해 교육계 신뢰를 추락시켰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은 그의 동생인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 동안 외래 진료와 테니스, 유희주점 등으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쓴 바 있다.

그의 '호화 도피생활'은 지난해 11월 7일 인천시내 한 식당에서 8년 2개월만에 끝이 났지만, 변호인을 통해 "도피생활 내내 고통에 시달렸다. 또 황제 도피도 아니었다"며 선처를 받아 호소해 공분을 샀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 최윤주 과장 '편두통 예방 치료 지침서' 공동 집필



예수병원 신경과 최윤주 과장이 대한신경과 학회와 대한두통학회가 지난 7월 21일에 공동으로 발표한 '편두통 예방 치료 진료지침'에 발간에 실무위원회 및 근거평가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두통학회의 '편두통 예방 치료 진료지침' 발간을 위해 발간위원장과 간사, 최윤주 과장을 포함한 실무위원회 및 근거평가 그룹 8명이 수차례 회의, 원격회의, 워크숍을 거쳐 지침을 집필했다.

최윤주 과장은 "처음 발간되는 편두통 예방 치료 진료지침 집필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편두통 예방과 치료,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새마을회 '3GO'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전주시새마을회원들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여름철을 맞아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차가 사다진 폭 25m, 길이 600m의 총경로는 △물놀이장 △원도심거리 △공동체거리 △시민활동거리 △청소년 활동거리 △시민마켓거리 △물놀이장 등 시민의 거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등 가족단위 시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물놀이장과 물놀이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물놀이장은 2개소를 설치하고 물총과 도로에는 얼음이 배치돼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 구도심 방문객들은 총경로에 멈춰 서고, 앉아서 쉬고, 놀면서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초부터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했으며 현재 30여개 단체가 차 없는

동아시아 폭력의 역사 살피기

홍성담 '야스쿠니의 미망-군산전' 평화비람부는여인숙에서 24일 전시

문화 공간 '평화비람부는여인숙'에서 평화프로젝트 '반미쳐라!'의 두 번째 전시로 홍성담 작가의 '야스쿠니의 미망-군산전'을 연다. 홍성담 작가는 2006년부터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폭력의 역사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가 있고, 그것이 재생산하고 있는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에 주목하고 작품 활동을 해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야스쿠니는 동아시아에 참혹한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낸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무서운 전쟁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다.

이날 경제자유, 군위안부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전쟁 범죄를 부정하며 전쟁국가가 되기 위해 발발하고 있는 지금의 아베 정권과 일본을 만들어냈다. 홍성담 작가의 '야스쿠니의 미망'은 제국주의와 국가주의가 만들어낸 민중들에 대한 참혹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또 친일이 청산되

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 곳곳에 야스쿠니가 살아 있음을 이야기한다. '평화비람부는여인숙'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근대역사문화'라는 이름 아래 일제의 잔재가 관광 상품으로 소비되는 이곳(근대문화거리)에서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한 채 이어지는 일본 제국주의를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참혹한 전쟁이 장소와 시기를 바꾸어 동아시아 전역에서 반복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은 무엇인지 전시를 통해 함께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이 전시는 24일 오후 4시 행사를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열린다. 또 8월 17일에는 홍성담 작가와 '작가와 의 대화'도 진행된다. 민중 예술 작가로 널리 알려진 홍성담 작가는 오월 광주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국가폭력과 권력의 민낯을 예술 활동으로 고발해왔다. /송효철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자원봉사자 '비비미' 모집

내달 21일까지 공개로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 현장에서 함께 축제를 이끌어갈 '비비미'를 오는 8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전주비빔밥축제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주한옥마을 및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한국 전통의 맛과 멋, 흥이 한 데 어우러진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비비미 모집분야는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안내를 담당할 안내관 △비빔전설, 쿠키콘서트 등 음식 관련 메인행사를 함께 진행할 음식행사팀 △비빔문화공연 등 다양한 공연

과 이벤트를 관리할 공연·이벤트팀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을 함께해 나갈 행사지원팀 △생생담 넘치는 행사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사기록팀 등 다섯 개 분야로, 총 1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비비미 참가신청은 전주비빔밥축제 누리집(www.bitimbapfest.com)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bitimbapfest@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063-231-8969)로 문의하면 된다. 비빔밥축제 조직위는 오는 8월 31일 면접을 거쳐 봉사자 각자의 적성에 맞는 팀에 배치한 후, 9월 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내 중심도로, 물놀이장 된다

시, 27일 총경로 600m 구간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 물총놀이·거리포장·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체험활동 마련

자동차로 가득한 전주시내 중심도로가 시민들의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거리공원과 물놀이장으로 바뀐다.

전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총경로사거리에서 다가까거리 공평지(관사) 앞 총경로 600m 구간의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장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차가 사다진 폭 25m, 길이 600m의 총경로는 △물놀이장 △원도심거리 △공동체거리 △시민활동거리 △청소년 활동거리 △시민마켓거리 △물놀이장 등 시민의 거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등 가족단위 시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물놀이장과 물놀이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물놀이장은 2개소를 설치하고 물총과 도로에는 얼음이 배치돼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 구도심 방문객들은 총경로에 멈춰 서고, 앉아서 쉬고, 놀면서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초부터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했으며 현재 30여개 단체가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참여단체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차 없는 사람의 거리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경로 해당 구간에 대해 오후 4시부터 2시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해당 시간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공구거리와 전주천 도로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임시 조정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 회복관에 아름다운 도시정원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전주 청소년인문포럼 27일 전통문화전당서

청소년들의 열린 인문학 토론의 장인 청소년인문포럼이 오는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청소년인문포럼은 청소년들이 인문학을 통해 자아를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청소년으로 키워내기 위한 인문 토론의 장으로, 올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정체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선정도서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다시 묻다를 읽고 참여해야 한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선정도서와 관련된 인공지능에 관한 강연, 모듬 토론 및 결과 발표 시간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저자인 김재민 경희대 연구교수와 만나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박재일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토론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로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고순대 대원, 공황장애 온 운전자 응급조치

고속도로순찰대가 공황장애 온 운전자를 응급조치하면서 동승한 일가족을 구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고속도로 운행 중 갑자기 찾아온 공황장애로 운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운전자를 안장시키고 동승한 4명의 가족들을 구호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순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경 "운전 중에 공황장애가 발생해 운전할 수가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인근에서 순찰 업무 중이던 광주 소속 설균성 경위와 유경훈 경위는 운전자에게 동승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뒤, 인정을 취하도록 설득했다. /강석훈 기자·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감정노동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5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감정노동근로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본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8차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근속년수 2년 이내의 희망자 120여명이 순차적으로 참가해 향초, 석고 방향제, 디퓨저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며 직무스트레스 해소, 건강 유지 및 증진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한 신청자들은 "단순하게 강의

를 듣는 것보다는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 활동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힐링하는데 더욱 효과적 인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남천 병원장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많은 환자들을 응대해야 하는 병원의 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의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 그 관리가 더욱 중요시 된다"며, "감정노동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직원 모두 미소를 띠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